

REUTERS WEEKLY NEWSLETTER

Monday, Jan 28, 2019 (2019-5 호)

- [주간 국내 일정](#)
- [주간 해외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전망](#)
- [지난주 주요 기사](#)

- ◇ (분석) 트럼프는 중국과의 합의 위해 온건파로 돌아서지 않을 것 - 자문관들
- ◇ (POLL) 美 정부 섯다운, 성장 저해할 것..올해 경기 침체 리스크 20%
- ◇ (초점)-금리인상 질문 사라진 금통위 기자간담회..한은 총재 "인하 논의할 단계 아니다" 반박
- ◇ (초점) 환헤지 요건 완화했던 당국, 리스크 감독 강화로 방향 선회..배경과 영향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이메일: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우버, 캐비파이 등 자동차 공유서비스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자를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로이터/수자나 베라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2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21.3	0.1%	-0.5%	-4.1%	유로	1.1412	0.4%	-0.5%	-4.4%
100엔 대비	1,020.2	0.5%	-0.4%	-6.9%	엔	109.53	0.2%	0.0%	2.8%
유로 대비	1,274.8	0.3%	0.2%	0.2%	위안	6.7485	0.5%	1.8%	-5.3%
위안 대비	165.60	0.2%	-2.3%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4,737.20	0.1%	6.0%	-5.6%
코스피	2,177.73	2.5%	6.7%	-17.3%	나스닥	7,164.864	0.1%	7.9%	-3.9%
코스닥	711.38	2.2%	5.3%	-15.4%	S&P500	2,664.76	-0.2%	6.2%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04.83	1.2%	5.8%	-16.2%
국고채 3Y	1.812%	-0.2bp	-0.5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884%	-1.1bp	0.0bp	-45.9bp	미국채 2Y	2.611%	-0.5bp	11.3bp	60.7bp
국고채 10Y	2.005%	-0.3bp	5.7bp	-52.1bp	미국채 10Y	2.759%	-2.9bp	6.8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3.69	-0.2%	18.2%	-24.8%	한국 5Y	33.08	-0.20	-4.98	-13.74
금(현물)	1,303.14	1.7%	0.1%	-1.5%	일본 5Y	19.27	-1.98	-2.51	-3.34
TR상품지수	2,396.66	0.7%	1.1%	0.0%	중국 5Y	57.17	-1.11	-9.30	16.96

(달러/원 서울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주간 국내 일정

<1월 28일(월)>

-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10:00)

<29일(화)>

- 특이 일정 없음

<30일(수)>

- 한은,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통계청, 2018년 11월 인구동향(12: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31일(목)>

- 통계청, 2018년 12월 산업활동동향(08:00)
- 경제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8:30)
- 한은,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12:00)

<2월 1일(금)>

-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산업부, 1월 수출입동향(09:00)
- 통계청, 2018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주간 해외 일정 (한국시간)

<1월 28일(월)>

- 중국, 12월 산업이익 (10:30)
- 유로존, 12월 총유동성(M3)/가계대출(18:00)
- 미국, 12월 전미활동지수(22:30)

<29일(화)>

- 미국, 1월 달러스런은 제조업지수(00:30)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시작(~30일)
- 미국, 12월 도소매재고 잠정치(22:30)
- 미국, 11월 케이스실러주택가격 (23:00)
- 미국, 1월 소비자신뢰지수(자정)

<30일(수)>

- 일본, 12월 소매판매 (08:50)
- 일본, 1월 소비자신뢰지수(14:00)
- 유로존, 1월 기업환경지수/경기채감지수(19:00)
-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1:00)
- 미국, 1월 ADP 전국고용동향(22:15)
- 미국, 4분기 GDP 잠정치(22:30)
- 미국, 12월 잠정주택판매(자정)

<31일(목)>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04:00)
- 일본, 12월 산업생산 잠정치 (08:50)
- 중국, 1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10:00)
- 일본, 12월 건축주문/주택착공 (14:00)
- 유로존, 4분기 GDP 잠정치 (19:00)
- 유로존, 12월 실업률(19:00)
- 미국, 1월 챌린저해고건수(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22:30)
- 미국, 1월 시카고 PMI(23:45)

<2월 1일(금)>

- 일본, 12월 실업률(08:30)
- 일본, 1월 외환보유고(8:50)
- 일본, 1월 닛케이 제조업 PMI(9:30)
- 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10:45)
- 유로존, 1월 마르킷 제조업 PMI 확정치(18:00)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NSA(19:00)
- 미국, 1월 비농업부문 고용/1월 실업률(22:30)
- 미국, 1월 마르킷 제조업 PMI 확정치(23:45)
- 미국, 12월 건설지출 (자정)
- 미국, 1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지수(자정)
- 미국,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자정)
- 미국, 1월 전미 차량 판매(2일 05:30)

<외환시장>

- 굵직한 빅 이벤트 및 지표 확인하며 변동성 확대될 듯하며, 이 과정에서 박스권 하향 조정 가능성도 보인다.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존의 온건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 이후에도 낙관론이 유지될 것인지가 관건이며, 당장 극적인 타결은 어렵겠지만 긍정적인 기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최근의 위험 선호 심리를 지지할 요인이다.
- 지난 주말 확인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매수가 지속되느냐가 관건이며, 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 실적 결과도 중요하다.
- 다만 한국의 1월 수출이 반도체 수출 부진이 가시화하며 작년 12월에 이어 감소했을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재료다.
- 예상 주간 거래 범위: 1110-1130 원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반등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연동하며 기간조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주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여파가 주초 증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29~30 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재확인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 역시 주목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일정 부분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며 증시를 다시 한 번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며 코스피지수가 2200 선을 다시 회복할 경우 채권 금리는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 다만 금리 레인지 상단에서 꾸준한 대기매수가 유입되고 있어 변동폭은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설을 앞두고 자금이 빠지면서 단기물 시장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전망이다.

(분석) 트럼프는 중국과의 합의 위해 온건파로 돌아서지 않을 것 - 자문관들

워싱턴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못지않게 합의를 위해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처리 등 실질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문관들이 전했다.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의하는 것만으로 양국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든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은 없다. 대화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할 때 계속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기술을 공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중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거나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결정하게 될 3월 1일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여전히 합의를 위해 중요한 핵심적인 구조적 요소들에 대해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아직 우려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는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트럼프 팀은 무역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도용, 저작권 제한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번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물려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진전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앞서 그보다 낮은 단계의 관료들이 예비회담을 위해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중국측 제안을 거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2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예비 무역회담을 갖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지만, 커들로 위원

장은 CNBC 에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팀들은 류허 부총리와의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양국 간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90 일 기한을 설정했으나 아직 서면 결과는 내지 못했다.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양측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긴장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미-중 무역회담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 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수의 회의를 했으며 중국과의 합의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이 1 조 2000 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 약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스콧 케네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가 중국 관리들이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중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해 미국 제품을 충분히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 기업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약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케네디는 중국인들은 이미 새로운 법과 기타 행동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합의한 90 일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2000 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달 말 류허 부총리와의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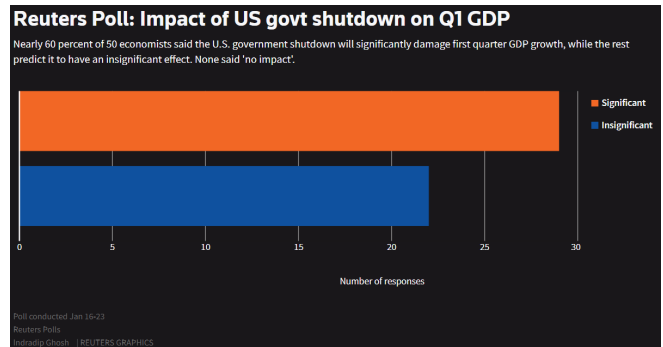
(POLL) 美 정부 섀다운, 성장 저해할 것..올해 경기침체 리스크 20%

(로이터) - 미국 연방정부 부분 섀다운 사태가 미국의 1 분기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했다.

로이터가 지난 16~23 일 100 명 이상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올해 1 분기 GDP 성장률은 2.1%, 4 분기 성장률은 1.9%로 전망돼 이전 조사 때보다 수치가 하향 조정됐다. 12 월 조사 때는 각각 2.3%, 2.0%로 나타났었다.

또 연준은 적어도 오는 4 월 30 일~5 월 1 일 회의까지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연준이 2 분기와 4 분기 두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조사 때는 1 분기와 2 분기 인상이 예상됐었다.

향후 12 개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지난달 조사 때와 같은 20%로 나타났고, 향후 2 년간 경기침체 가능성은 40%로 역시 이전 조사 때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금리인상 질문 사라진 금통위 기자간담회..한은 총재 "인하 논의할 단계 아니다" 반복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도 완화적이다. 더 완화적으로 가는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부분적이겠지만 금리 인하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금 현재도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수준도 완화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예상하는 성장세도 지난해 수준이고 잠재 성장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금리 인

하를 논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다.

기자들은 반도체 경기 둔화에 따른 성장을 추가 둔화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하향 조정,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을 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타진했고 이 총재는 그때마다 "금리를 인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코픽스 산정 방식을 개선해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됨으로써 한은의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을 뿐이다.

▲한은 총재, 기존 스탠스 반복..금리 인상 기조지만 여전히 완화 기조

이날 기자간담회만 보면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경기 둔화 국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날 금통위가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 한 차례, 지난해 한 차례씩 기준금리를 인상한 금통위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의 확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금융불균형 확대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만,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게 그동안 금통위의 스탠스였던 것이다.

이날 이 총재 역시 "실물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면 금융불균형을 막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금리를 인

상한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안정 리스크, 가계부채도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실물경기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금융안정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 "금리 인하 필요한 시점 아니냐" 논리, 기자간담회에 반영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 초점은 달랐다. 국내 경기 전망만 봐서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가 필요한 국면 아니냐는 지적이 다수였다.

기자들의 질문은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 폭 확대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 하향 조정 등에 맞춰졌는데 이 총재의 답변도 한결같았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 우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 경기 하강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일정 부분 조정을 겪은 후 반등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미국 연준이 시장의 경기 우려를 어느 정도 감안해 당분간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지표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한은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실물경제 흐름보다 좀 더 비관적이고 시장의 속성상 여러 불확실성 요인을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선반영한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이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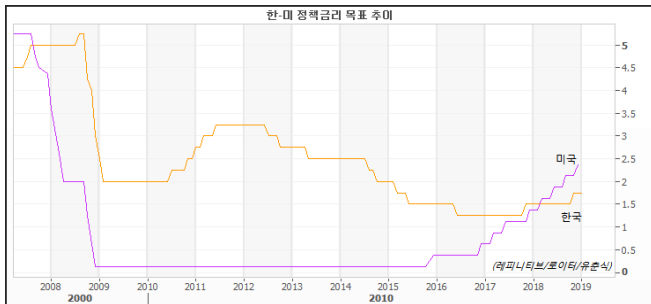
한은이 올해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국내 경기가 급격히 꺾이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GDP 성장률 2.6~2.7%는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 있고 물가상승률 둔화는 국제유가 급락 등 공급 요인에 의한 게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한발 빨리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반영한 시장의 논리와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싶어 한 한은 총재의 논리가 맞붙은 기자간담회였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18년에 한은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올해 몇 차례 추가 인상할지가 관건이었다"며 "오늘 금통위 기자간담회를 보면 올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른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 환헤지 요건 완화했던 당국, 리스크 감독 강화로 방향 선회..배경과 영향은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그동안 보험사 환헤지 인정 요건을 완화해 왔던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환헤지 미스매칭에 따른 FX 스왑시장의 구조적 수급 쏠림이 향후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외화자산 규모, 환헤지 만기 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외환채권과 환헤지 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해 차환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계약만기 1년 미만 파생상품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만큼 시장 위험액을 계상하고 현재 0%인 위험계수를 2019년 0.4%, 2020년 0.6%, 2021년말 0.8%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6개월 미만 파생상품 익스포저는 1.6%,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은 0.8%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헤지 만기를 과도하게 짧은 단기로 운용할 때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헤지목적의 경우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외환익스포저 전액을 차감한다.

그동안 환헤지 미스매칭 투자 한도를 완화해 왔던 금융위가 다시 리스크 관리 모드로 선회한 셈이다.

금융위는 총자산 중 외화유가증권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보험사는 현재 8개사인데 이 중 일부 보험사의 경우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만기가 짧은 환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금리 정상화로 FX 스왑레이트가 하락할 경우 외화증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손실발생이 가능하다는 환헤지 추이, 차환 리스크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당장 어떤 리스크가 커져서 대응한다기보다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미리 준비하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 구조적 수급 쏠림

지난 2012년부터 보험사의 외화증권투자는 빠르게 증가해 총자산 대비 외화증권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외화증권 운용잔액은 61조원이었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239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장기 외화채권을 투자하면서 단기 크로스커런시스왑(CCS)을 통해 환을 헤지하는 미스매칭 투자 크게 늘었다. 그러다 2017년 금융당국이 헤지목적의 경우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외환익스포저를 전액 차감하게 하는 등 환헤지 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FX 스왑시장의 구조적 수급 쏠림은 본격화됐다.

작년말 1년물 FX 스왑포인트는 -2050 전까지 밀려 2009년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분기말이나 연말에는 보험사들의 물지마 식 환헤지 물량에 장단기 할 것 없이 FX 스왑시장의 변동성이 매번 대폭 커졌고, 결국 구조적 불안요인으로 굳혀졌다.

물론 환헤지 비용 급증으로 보험사들이 해외투자를 줄이거나 환을 오픈하거나 또는 헤지 기간을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단기 롤오버 물량 규모상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X 스왑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시장은 당국 개입을 기대했고, 이에 당국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회성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험사 수급에 따른 시장 가격 하락을 당국이 방어한다는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국 수급 영향력도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외환당국의 선물 환 순매수 규모는 약 150 억달러 줄었다.

이같은 축소된 당국 수급과 함께 주요국 긴축여건에 따른 달러 유동성 상황, 국내 경상흑자 축소 가능성 등에 당국은 좀 더 발빠른 대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시장 영향 가능하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환헤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FX 스왑시장의 놀림 현상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은행의 스왑딜러는 "단순히 수급상으로만 보면 단기쪽 스왑은 비디쉬해질 것이고 크로스는 놀려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헤지 비용이 커지니까 해외투자 유인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만 접근한다면 시장내 수급 쏠림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른 측면에서는 스왑 베이스스가 줄면서 외인 재정거래는 축소될 것이라고 외인 채권 투자가 줄어드는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시장의 어느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지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한미간 금리 역전에도 마이너스 달러/원 스왑포인트에 따른 재정거래 유인으로 한국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외인들의 재정 거래가 단기 외채비중을 늘리는 효과도 있는 만큼 상충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작년 신흥국 불안이 커졌을 때 이같은 외인 채권자금 유입이 심리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다른 금융당국자는 "외국인의 재정거래 등은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시장 기능 강화와 안정성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투자 확대 기조 속에 무엇보다 환변동을 감내할 수 없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분간 투자 관련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환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경우 환위험을 관리할 수 밖에 없다.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장기는 단기보다 더욱 많이 부족해 장기 환헤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면서 "건전성 측면은 이해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딜레마"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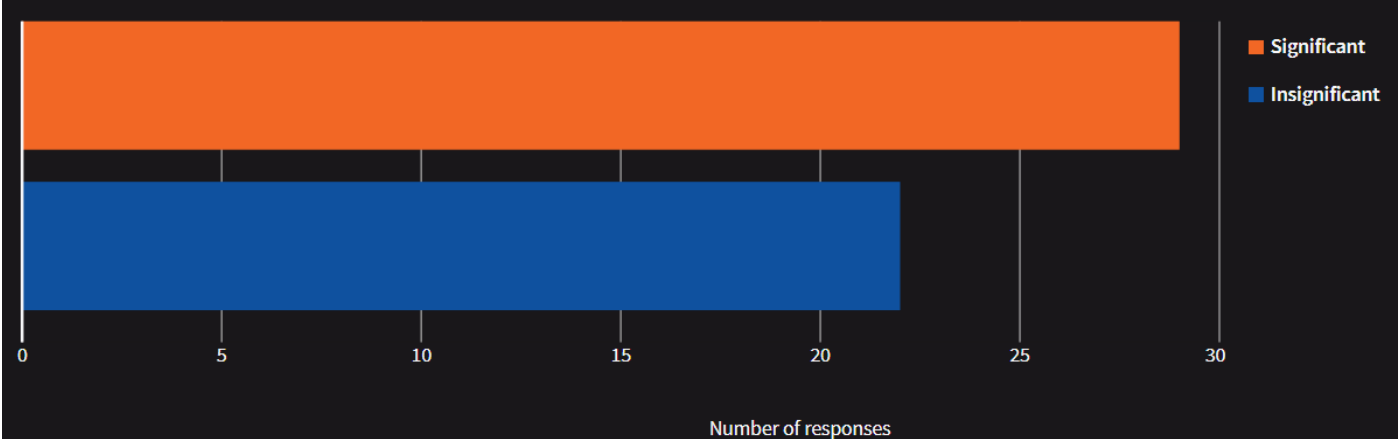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Reuters Poll: Impact of US gov't shutdown on Q1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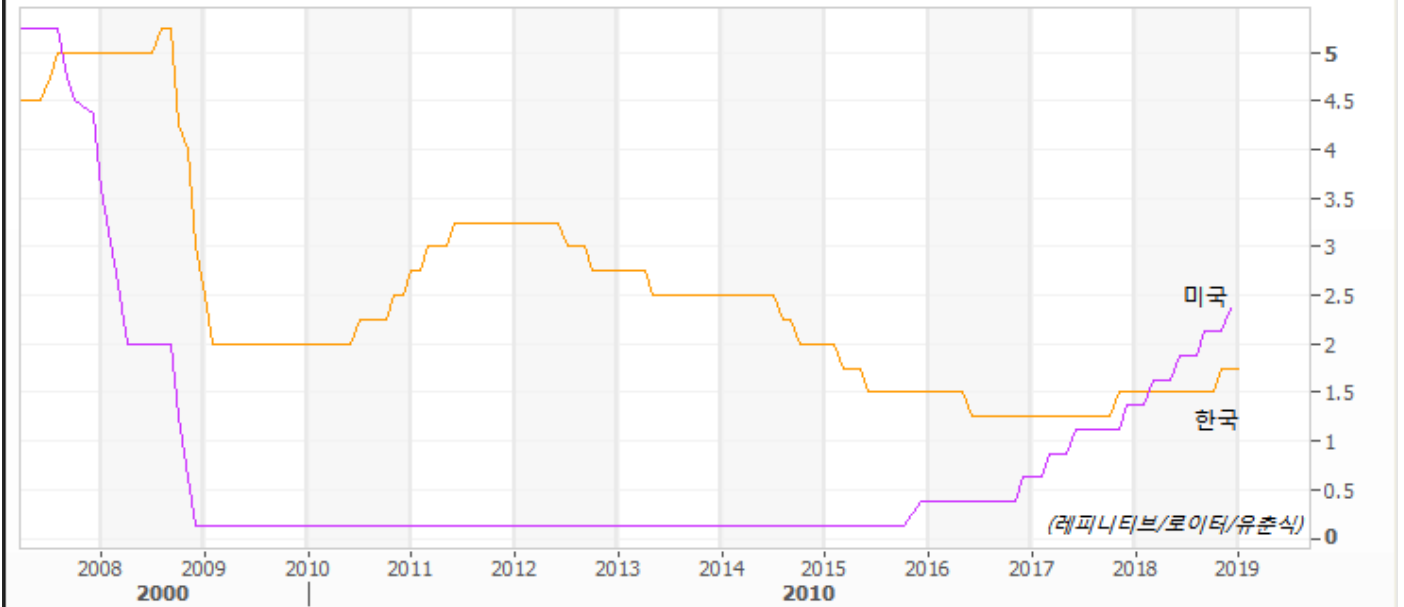
Nearly 60 percent of 50 economists said the U.S. government shutdown will significantly damage first quarter GDP growth, while the rest predict it to have an insignificant effect. None said 'no impact'.



Poll conducted Jan 16-23
Reuters Polls
Indradip Ghosh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한-미 정책금리 목표 추이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